해인사, 스님 노후 복지 본격 시작

11월 초부터 '승려주거복지지원사업' 실시

건물 매입해 방사 15개 마련
중덕 이상 재적승에게 제공
수행공동체 위한 복지 확대
국민연금 등 가입지원 나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법보종찰 해인사가 스님들의 거주와 노후를 위한 복지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해인사는 올해 11월 초 방사를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거주 방사를 더 확대해 입방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국민연금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지원해 노후 복지에 힘을 쏟고 있다.

해인사(주지 현응)는 9월 1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승려주거복지지원사업' 및 노후복지를 위한 방향을 설명했다.

해인사는 스님들을 위한 주거복지지원사업을 시작하고 다가오는 11월 초 스님들에게 방사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방사는 해인사 소유의 '소리원'과 '조주원'의 방사를 활용했으며 중덕(정덕) 이상의 재적승 15명에게 제공된다.

입방을 희망하는 스님들은 해인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종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입방대상자가 선정되고 소정의 관리비 납부 및 면제가 결정된다.

해인사는 "입방한 스님들은 청규에 의거 생활하며, 가야산 해인사 수행공동체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승단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해인사 전경. 해인사는 승려노후복지를 위해 11월 초 해인사 소유 방사를 중덕이상 스님들에게 제공한다.

'승려주거복지 시범사업'은 스님들의 복지를 위한 해인사의 중심 사업으로 지난 8월 31일 임회 보고를 마쳤다. 승려주거복지 시범사업은 조계종 종단과 국가의 각종 복지제도를 근거로 제정된 해인사교구 승려복지 지원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복지 혜택이다.

해인사에 따르면 "스님들이 주거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종단이 이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라 판단해 승려주거복지지원을 중점으로 방향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인사는 지난 해 2019년 10월 24일 임회에서 '해인사교구 승려복지규정'을 선정하고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본격적인 승려복지 시행을 위해 재적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집중토론을 거친 결과이다.

복지혜택은 해인사 교구 등록사찰에 거주하는 재적승에게 우선 제공된다. 타교구 재적승은 해인사와 교구에 기여한 공로가 큰(소임, 재정 등) 스님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 지원은 중덕(정덕) 이상의 재적승에게 방사를 제공한다. 방사 제공 기간은 2년이 기본이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안정적인 방사 제공을 위해 운영위원장은 정기적으로 거주지원 대상 재적승의 방사 수요를 조사하고 시설마련을 위해 노력 할 계획이다.

앞으로 해인사는 주거복지를 위해 입방 대상자를 늘려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해 해인초등학교 건물과 합천 가야면 치인리에 위치한 건물 1개를 매입했다. 방사 수요 조사를 실시 후 안정적으로 방사를 제공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수행공동체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한편, 해인사는 종단의 승려복지제도에 발맞춰 해인사 재적승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보험 가입을 장려했다. 그 결과 전국 모든 교구 가운데 가장 많은 재적승이 가입했고 지원금액도 최고로 높다.

2020년 8월 승려복지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인사 재적승의 상반기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370명이며 지원금은 7천6백8십8만2000원이다.

해인사는 "교구에 소속된 스님들의 연락처를 확인해 직접 연락하고 승려복지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했다"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으며 그 결과 가장 많은 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스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코로나에도 인재불사 계속된다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 청소년장학금 보시

초 · 중 · 고 · 대학생 25명
총 1000만원 비대면 전달


갑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1994년 창립된 이후 26년간 지역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활동해 온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 탑사 주지)가 9월 5일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갑룡장학회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진안군민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실에서 김준호(전주공고2)학생을 비롯한 대학생 10명, 초 · 중 · 고 재학생 15명 등 총 25명의 지역청소년들에게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갑룡장학회의 장학금 전달식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장학생 대표 등 최소인원만 참석하고 장학금은 온라인으로 전달됐으며 갑룡장학회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간의 업무협약에 의한 장학금 전달은 올해로 7번째이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은 갑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 전춘성 진안군수, 김용진 진안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최주연 센터장,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들은 자원봉사활동에 보다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원봉사자가족과 학생 중 진안군자원봉사센터에 의해 추천 선발됐다.

갑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은 "타인에게 나를 낮추며 배려할 수 있는 가르침은 봉사와 나눔에서 실천으로 공부하는 것이다"며 "이웃을 살피고 친구를 도와주고, 홀몸어르신들의 빨래를 하고 맛있는 반찬을 함께 나누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정신을 실천하는 재목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사태에 이어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오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진안의 희망이자 미래이며 자원봉사에 힘쓴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충분히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격려했다.

장학생을 대표한 김준호 학생은 "누구나 봉사정신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 어려운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해온 어머니가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들은 봉사선행 학생으로 진안군자원봉사센터에 의해 추천 선발됐다.

마이산탑사는 1994년부터 갑룡장학회를 통해 종교와 상관없이 불우한 환경에 처한 학업우수자들에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으며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장학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3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국대 경주캠, 명상심리상담 입학 모집

접수기간 9월 23일~28일



불안한 현대인에게 명상은 치유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된다. 명상심리상담가 양성을 위해 문을 연 동국대 경주캠퍼스 명상심리상담학과가 제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명상심리상담학과는 불교를 기반으로 명상과 심리 상담을 연구하는 곳으로 괴로움을 겪는 현대인에게 다양한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수시원서 접수기간은 9월 23~29일이며 수시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농어촌 정원으로 총 20명을 선발한다. 불교추천은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포교당 포함) 주지스님이나 종립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명상상담심리학과 교육과정은 불교와 명상 그리고 상담으로 나눠 진행된다. 불교관련은 불교상담심리학, 선수행론, 불교와 심신의학 등이며 명상관련은 명상과 스트레스, 명상과 건강심리, 명상과 뇌과학 등이다. 상담관련 과목은 아동청소년 상담, 성격심리학, 심리상담, 심리검사 등이며 명상 실습과 국내외 명상시설 탐방 및 집중수련도 진행된다.

교과목 이수 후 명상지도자,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졸업 후에는 청소년상담기관, 교육기관 상담센터, 소년보호기관, 교도소, 재활원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활동 가능하다.

안양규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은 "명상을 중심으로 교과목이 이뤄지며 기본적으로 서양 심리 상담 이론도 배워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054)770-2393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구례 수재민 위한 자비의 손길 이어져

화엄사 · 정광학원 · 반야회 · 굿월드 등 기금 소독제 등 전달



화엄사와 정광학원은 8월 29일 구례군청에서 수재만 의료용품을 전달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례지역 수재민을 위한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종립학교인 학교법인 정광학원(이사장 덕문)과 화엄사는 지난 8월 29일 구례군을 방문해 수재민을 위한 의류용품 3,000만 원 상당을 전달하고, 수해지역의 빠른 복구를 기원했다.

전달식에는 이사장 덕문 스님을 비롯해 정광학원 영일 스님, 이동배 교법사와 교직원, 학생회 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구례지역은 섬진강의 범람과 5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인근 지역의 주거지와 농경작지가 대부분 피해를 입어 3주일 넘게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덕문 스님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물품이다. 어려운 수재민들에게 소중한 마음을 전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주 만덕사 반야회(회장 유진숙)도 8월에 이어 9월 10일 구례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도운)를 방문해 수재민을 위한 밑반찬 120세트를 전달했다. 재해 복구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힘든 수재민의 반찬 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에 반야회 회원들이 3일에 걸쳐 만든 반찬 5종류를 각각 용기에 담아 120개 만들어 이날 전달한 것이다.

한편 불교어린이 구호단체 (사)굿월드 자선은행(대표 덕문)과 화엄사는 9월 9일 구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손세정제를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불정사, 나눔으로 백중기도 회향

백미 1000kg 및 성금 500만 원 전달



인재불사 도량 천불정사(주지 고담)가 백중기도를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으로 회향했다. 천불정사는 9월 4일 부산 금정구청장실에서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천불정사는 성금 500만 원과 쌀 20kg 50포 총 1000kg을 전달했다. 성금과 백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후 소외 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성금은 백중기도에 동참한 신도들의 보시금과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마련됐으며 천불정사는 49일 동안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백중기도를 봉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불정사 범성 법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한 백중기도였지만 신도님들이 마음을 더욱 더 모아 주신 것 같다"며 "그 결과를 오늘 전달하고 회향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수해 복구 지원금 전달

십시일반 모금 활동으로 성금 555만 원 전달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은 9월 4일 '수해 복구 성금 전달식'을 쌍계사 설선당과 템플스테이관 및 하동군청에서 개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이 수해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불자 및 시민들을 위해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포교사단 경남지역단(단장 박해덕)은 9월 4일 '수해 복구 성금 전달식'을 쌍계사 설선당과 템플스테이관 및 하동군청에서 개최했다.

성금은 총 555만 원으로 경남 포교사단들이 십시일반 모금 활동을 펼쳐 마련한 후원금이다. 성금은 하동군청 수재민을 위한 성금 150만 원, 하미자 경남포교사에게 230만 원이 전달됐다. 하미자 포교사는 경남지역단 서부총괄 심우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집중 호우로 인해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쌍계사에 198만 원 상당의 제습기를 제공했다. 경남포교사단 지도사찰인 쌍계사 교육관이 긴 장마와 폭우로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어 환경을 개선하고자 경남포교사단이 나섰다.

박해덕 단장은 "코로나 사태와 집중호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함께 마음을 내 동참해 주신 포교사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여원, 수해지원금 1000만원 지원

9월 8일 아름다운동행에 전달

재단법인 진여원이 폭우와 긴 장마로 수해 피해를 입은 사찰과 이재민을 위한 복구지원금을 전달했다.

재단법인 진여원(신뇨엔 · 이사 정경)이 9월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재단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수재의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정경 국원, 창훈 국원이 참석했다.

재단법인 진여원 상무이사 정경 국원은 "성금을 통해 수해피해를 입은 사찰이 복구되고 이재민들의 한숨이 덜어지길 바란다"며 "어려움이 많은 이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찰에 잘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재단법인 진여원은 1936년 개조 이토 신죠(1906~1986)가 개창한 신뇨엔을 근간으로 활동하는 법인이다. 신뇨엔의 '신뇨'는 '진여(眞如)'를 의미하며 대반열반경(소의경), 전등법맥(재가출가), 신통영묘(접심수행)를 근본으로 삼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서울정사, 부산정사, 창원포교원, 제주포교원이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